

2008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언어 영역

정답

1	①	2	⑤	3	④	4	②	5	⑤
6	④	7	③	8	④	9	⑤	10	④
11	①	12	⑤	13	①	14	④	15	③
16	⑤	17	⑤	18	④	19	⑤	20	①
21	⑤	22	④	23	②	24	④	25	①
26	③	27	④	28	④	29	③	30	⑤
31	③	32	④	33	②	34	②	35	④
36	③	37	②	38	②	39	③	40	①
41	②	42	①	43	③	44	③	45	③
46	②	47	⑤	48	①	49	④	50	②

듣기대본 및 해설

1. <듣기>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자(항공사 직원) : 어서 오세요. 한국 항공입니다.

여자(여행자) : 안녕하세요.

남자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자 : 예, 이번에 뉴욕에 있는 언니를 좀 만나려고요, 비행기 예약 좀 하려는데요.

남자 : 아, 네.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석 중에서 어떤 좌석을 원하십니까?

여자 : 이코노미석이요 좋겠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처음 타는데다가 열다섯 시간이나 탈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네요. 비행기를 오래 타려면 자리가 편해야 할 텐데, 어떤 좌석이 좋을가요?

남자 : 예, 비행기 좌석 배치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여행을 원하신다면 일단 날개 옆 좌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엔진 소음이 있고, 날개에 가려 전망도 잘 볼 수 없거든요. 또, 사람이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화장실 앞 좌석도 시끄러운 편입니다.

여자 : 그런데, 제가 좀 조심해서요.

남자 : 아, 그러세요? 그러시다면 복도 측 좌석도 좋습니다. 옆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드나들기 편하기가요. 하지만 안쪽 승객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여자 : 그러면, 여차피 밤에 갈 거니까, 잠을 자기 편한 곳으로 할까요?

남자 : 비행 내내 방해받지 않고 수면을 취하려면 창가가 좋습니다. 바깥 경치를 내다볼 수도 있겠고, 또, 여기를 한번 보세요. 각 구역 맨 앞 자리는 앞 좌석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좌석보다 더 넓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유일하게 요람을 걸 수 있는 자리라 어린 아이를 동반한 부모에게 배정되는 경우가 많죠. 신혼부부라면 비행기 맨 끝 좌우도 좋습니다. 이코노미석임에도 뒤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비행기 구조상 두 좌석만 붙어 있어서,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거든요.

여자 : 두 살 난 아이를 데리고 가야하는데…….

남자 : 아, 그러세요? 방금 전에 설명 드린 이 자리가 좋겠네요.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아이를 동반하고, 잠을 자기 편한 자리는 각 구역 맨 앞 좌석, 창가 쪽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 <듣기> 이번에는 교양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환경 파괴로 인해 서서히 온도 조절 능력을 상실해 가는 지구. 지구 곳곳에서 이미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꽤 자주 먹는 편이지요. 그런데, 환경 파괴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웬 햄버거? 이상하죠? 아무 상관없이 보이는 이상 기후 현상과 햄버거, 과연 이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햄버거는 두 쪽의 빵과 야채 그리고 다진 고기로 만들어집니다. 1초마다 200개의 햄버거가 소비된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한 햄버거 회사는 121개 국에서 무려 29,0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 고기가 필요하고, 이 고기를 얻기 위해 소를 키워야 합니다. 또 이 소를 키우기 위해 숲을 태워 거대한 목초지를 조성해야겠지요. 이 목초지를 조성하기 위해 1970년대 말 중앙아메리카의 농토 2/3가 축산 단지로 전환되었고 매년 남한 땅만큼의 목초지가 파도한 방목으로 인해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고기 100g, 즉, 햄버거 1개를 만들기 위해 1.5평의 숲이 목초지로 전환되고 또 사라져 갑니다.

(사이)

두 조각의 빵과, 야채, 고기가 햄버거의 전부는 아닙니다.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 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기 위해 목초지를 만들고,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숲을 태우고, 사라진 숲으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결국에는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죠.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인간의 작은 행동이 환경 파괴와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인간의 행동이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 <듣기> 이번에는 수업 장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 자, 이제 날씨가 슬슬 더워지는구나. 더울 땀 역시 시원한 수박 한 쪽이 제격이지. 너희들도 수박 좋아하니?

학생들 : 예.

현아 : 그런데, 선생님. 냉장고에 넣어 놓은 시원한 수박은 맛있는데요, 시장에서 막 사온 미지근한 수박은 맛이 없거든요. 왜 그런가요?

선생님 : 우리 현아가 어제 미지근한 수박을 먹었나 보구나.

(웃음)

선생님 : 우리는 보통 과일을 먹을 때 무더운 여름이든 추운 겨울이든 과일을 차게 해서 먹곤 하지.

현아 : 맞아요, 선생님. 과일은 차게 해서 먹어야 더 달게 느껴져요.

선생님 : 그래, 그렇다면 과일의 맛과 온도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선 단맛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설탕의 단맛을 100이라고 할 때, 과일의 단맛 정도는 115~117, 포도당은 65~75 정도가 된단다. 과당과 포도당의 단맛 값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단맛의 정도가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야. 거의 모든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 있고, 이 과당은 설탕보다 더 단맛을 낸단다.

현아 : 그러면 과일 속에 들어 있는 과당 함량이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단맛이 변하는 건가요?

선생님 : 음……. 그렇진 않아. 과일 속의 과당 함량은 언제나 일정하지. 과당에는 알파형과 베타형이 있는데, 이 과당의 베타형이 알파형에 비해 세 배나 단맛을 낸단다.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의 베타형과 알파형 비율이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같은 과일이라도 단맛의 차이가 생기는 거지.

현아 : 그러면, 선생님. 온도가 내려가면 알파형이 베타형으로 바뀌어서 과일 속에 베타형이 많아지고, 반대로 온도가 올라가면 알파형이 많아진다는 건가요?

선생님 : 그렇지, 우리 현아가 잘 이해했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과일을 너무 차갑게 하면 우리 혀의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단맛을 느끼지 못하게 된단다.

[출제의도] 세부적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과일 속 과당은 온도가 내려가면 알파형이 베타형으로 바뀐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4~5. <듣기> 이번에는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여) : 안녕하십니까? 시사 대담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인 김 박사님을 모시고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우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박사(남) :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 자격으로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판사에게 평결을 권고하는 제도죠. 배심원제와 참심원제를 혼합한 형태로, '한국형 사법참여제도'라 할 수 있지요.

사회자 :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배심원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지는 건가요?

박사 :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지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참고하되 그 평결을 따를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판사는 판결 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려야 하고,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니 배심원단의 평결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사회자 : 박사님, 그럼 모든 피고인들이 이 제도로 재판을 받게 되나요?

박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는 살인, 강도, 뇌물 수수 등 중범죄 사건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또 그런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으면 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사회자 :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사 : 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하게 됩니다. 만장일치가 아닐 때에는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평결합니다. 그리고 유무죄 평결 후에 배심원과 판사가 함께 형량을 토의하게 됩니다.

4. [출제의도] 대담 내용을 듣고 이어질 질문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배심원제는 유무죄 판단을 판사와 상관없이 배심원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참심원제는 참심원과 판사가 함께 유무죄 판단 및 형량을 결정한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배심원의 모든 결정은 권고사항이지 판사에게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5. [출제의도] 대담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사회자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청취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질문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쓰기 ****

6. [출제의도] 연상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동시에 두 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내용을 연상하기는 어렵다. 또한 바위의 모양새를 관찰하는 것에서 적성을 고려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7. [출제의도] 자료를 결합하여 해석한 내용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자료3>을 보면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8. [출제의도] 개요 수정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특정 분야에 편중된 독서 습관'이라는 학교 도서관 이용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 지도'는 적절하다. 대출 금지와 같은 규제도 해결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9.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는 문제이다.

첫 번째 조건은 모든 선택지에, 두 번째 조건은 ①, ⑤번에, 세 번째 조건은 ②, ③, ④, ⑤번에 충족되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하루만큼은'에서 '만큼'은 조사이므로 앞 단어와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1.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부사어에 대해 답구하는 문제이다.

부사어는 부속 성분으로 용언뿐 아니라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문장을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첫 문장은 용언, 둘째 문장은 부사어와 용언, 셋째 문장은 문장 전체를 각각 수식하는 예이다. 부사어는 필수 성분이 아니므로 문장 내에서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무척, 열심히, 확실하'가 그 예이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 '확실히'는 문장 내에서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사어는 체언을 수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2. [출제의도] 사람과 관련된 접미사의 의미와 예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뜻내기'와 '신출내기'는 접두사 '뜻-'과 어근 '신출'에 접미사 '-내기'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그리고 접미사 '-내기'는 '그런 특성을 지닌 사람'의 뜻을 나타낸다. ⑤에 해당하는 예로 서울내기, 시골내기 등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현대 소설 ****

□ 출전 : 문순태, 「정소리」

13. [출제의도]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끓어오르는 빗방울', '가을바람' 등 자연적 배경을 통해 칠복의 암울한 심리와 그를 찾아낸 마을 사람들의 죄책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

서 정답은 ①번이다.

14. [출제의도] 중심 사건과 중심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칠복을 쫓아내고 마을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보기> 'ㄷ'의 정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양심의 소리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5. [출제의도] 행동에 내재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은 강촌영감의 말에 봉구, 덕칠, 팔만이 단순히 뒤따르는 행동으로 복합적인 심리가 담겨있다고 말할 수 없다. 나머지는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칠복을 쫓아내고 있기는 하지만,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는 내면의 고뇌와 불편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6. [출제의도] 사건 흐름에 따른 인물의 내면 의식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칠복은 자신을 쫓아내는 마을 사람들에게 갈 곳이 없다며 매달리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과학 ****

□ 출전 : 과학동아, 「백신이 여는 질병치료 르네상스」

17.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①은 다섯째, ②는 첫째, ③, ④는 둘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인체의 면역계는 몸속 고유단백질을 바이러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몸속 구성물로 인식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8.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①은 예방 백신으로 외부 물질인 항원에 대해 몸의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와 달리 ①은 치료 백신으로 몸속 구성원이 '말생'을 일으켜 발병한 질병을 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9. [출제의도] 정보를 유사한 다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비만은 각 조직에 지방이 과축적되어 생기는 것이다. ㉠~㉣은 인체 각 조직에 단백질을 쌓아 나르는 것을 담당한다. 그러나 단백질 축적에 관여하는 것은 ㉣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복합 ****

□ 출전 : 서정주, 「추천사」·이기철, 「길의 노래」·작자 미상, 「청산별곡」

20.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이다.

(가), (나)에는 이상 세계에 도달하기를 소망하나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화자의 갈등이, (다)에는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이상 세계에서 안식을 찾으려는 화자의 방황과 슬픔이 드러나 있다.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극복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1. [출제의도] 표현상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이다.

(가)에는 '나를 밀어 올려 다오'를 반복하여 이상 세계로 가고자 하는 화자의 강렬한 욕망을 강조하고 있다. (다)에는 '살아리앗다', '우려라 세여' 등을 반복하여 '청산'을 동경하면서도 속세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화자의 비애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2.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감상 내용에 따르면 '대구'는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현실 세계를, '온혜사'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를 의미한다. '풀꽃더미'는 현실 세계를, '하늘'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 세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3.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는 문제이다.

①, ⑤는 둘째 조건에, ③, ④는 첫째 조건에 맞지 않아서 오답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4. [출제의도] 다양한 해석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이다.

(다)는 시적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2연의 '우려라'를 '노래하다'로 해석할 경우, '너보다도 근심이 많은 나도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데'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인문 ****

□ 출전 : 박은미,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25. [출제의도] 전제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나'와 '남'의 의지가 서로 엇갈려 갈등 상황이 되는 것은 의지의 맹목성 때문이다. '의지의 맹목성'이란 '남'의 의지를 부정하고 '나'의 의지만 긍정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이기심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6.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다른 작품에 적용해 보는 문제이다.

'덧없음을 깨닫고'는 해탈이나 득도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식의 과정이다. 의지가 있는 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 즉 의지의 부정이 먼저 있어야 고통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7.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인간은 의지가 있는 한 고통을 피할 수 없으므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의지를 부정하고 새로운 의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절할 때 고통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기술 ****

□ 출전 : 동아일보, 「방제 기술은 어디까지 왔나」

28.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기름 확산 과정 및 피해, 그리고 방제 작업을 설명하고 있다. 방제 작업의 종류와 효과,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과 방제 기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방제 작업의 효과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9.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유엔화재는 화학적인 방제방법으로, 기름 성분을 응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굳어버린 기름과 물을 분리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30. [출제의도] 유사한 사례를 찾는 문제이다.

①은 흡착포를 이용해 기름만 빨아들이는 원리이다. 이것은 클립, 유리, 나무 조각 등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자석에 철이 붙는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 클립만 빼내는 사례와 유사하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1. [출제의도] 격조사의 의미를 찾는 문제이다.

'사고로'의 '로'는 'ㄷ', '유회수기로'의 '로'는 'ㄱ', '섬유로'의 '로'는 'ㄴ'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고전소설 ****

□ 출전 : 박지원, 「민옹전」

32. [출제의도] 인물의 말과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악공들은 연주에 열중하고 있었을 뿐, 민 영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3. [출제의도] 작가가 작품을 쓰게 된 의도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여상(呂尙)은 여든의 나이에 장수가 되어 새배처럼 드날렸지만 민 영감은 세상에 쓰이지 못해 그 뜻을 펼치지 못했다. 작가는 그런 그를 안타까워해서 이 글을 지은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4. [출제의도]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전반부의 일화에서 민옹은 해를 거듭함에도 늘 자신을 돌아보며 성인을 닮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후반부의 일화에서는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포착하여 새로운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5.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이다.

[A]와 <보기> 모두 풍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종로 네거리에 한길 가득히 오가는 것들'은 풍자의 대상이므로 <보기>의 '체비'와는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언어 ****

□ 출전 : 이관규, 「학교문법론」

36.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중의문을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37.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묻는 문제이다

②는 주체가 '철수' 한 사람으로, '철수가 영수와 순이를 좋아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8. [출제의도] 관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시치미를 떼다'는 '짐짓 알고도 모르는 체하거나, 하고도 안 한 체하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사회 ****

□ 출전 : 한순구, 「다수결에 대한 이의(異議)」

39. [출제의도]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다수결 제도가 후보가 둘일 경우에는 이상적이지만, 셋 이상일 경우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0.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A]는 다수결 제도, [B]는 조함비교투표 제도이다. [A]를 적용하면 '순이'가 당선된다. [B]를 적용하면 (철수, 순이)=(23, 17), (철수, 영희)=(30, 10), (순이, 영희)=(17, 23)이 되어 각각 '철수', '철수', '영희'가 이기게 된다. 이 방법에 따르면 당선되는 것은 '철수'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1.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후보가 둘일 경우에는 ㉓가 합리적이며, 셋 이상일 경우에는 '㉔, ㉕>㉖>㉗'의 순서로 합리적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2. [출제의도] 접미사의 사용 환경 및 방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교육하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므로, <보기>의 '-시키다'가 결합되어 자동사를 타동사로 만드는 사례와는 관련이 없으며, '교육시키다'는 '교육하다'만으로 가능한 단어를 불필요하게 이중사동으로 만든 잘못된 단어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회곡 ****

□ 출전 : 차범석, 「성난 기계」

4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상현은 수술 결과가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인옥의 수술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4. [출제의도] 지시문의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금숙은 기계 같던 회기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짓는 것이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5. [출제의도] 인물 행동의 계기를 찾는 문제이다.

회기는 수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냉정하게 수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인해 잠재되어 있던 인간미를 되찾고 수술을 결심하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6. [출제의도] 인물을 다른 작품의 인물과 비교하는 문제이다.

기계 같이 냉정하던 회기는 [A]에 와서 감정을 지닌 '성난 기계'로 바뀌게 된다. 회기는 잠재되어 있던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므로 자기 일신(一身)을 먼저 생각하는 '이인국'과는 다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예술 ****

□ 출전 : 오카베 마사유키, 「청소년을 위한 명화 감상의 길잡이」

47.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세잔과 입체파는 대상을 기하학적 형태로 파악했다. 하지만 세잔은 대상의 형태감을 살리려 했고, 입체파는 세잔에서 더 나아가 대상을 해체한 후 재조합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8.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세잔이 모든 대상을 원추와 원통과 구체로 탐구한 것은 회화의 본질이 대상의 형태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9.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이다.

두 작품은 고정된 시점을 버리고 다시점 화법으로 그렸다. 그 결과 대상의 형태가 왜곡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50. [출제의도] 어휘의 형성 방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차원'은 '이-차원', '삼-차원'과 같이 '차원(次元)'에 '이(二)'가 합성된 단어이므로 '이차원'에서의 '-원(元)'은 한자어의 뜻을 더해주는 접미사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